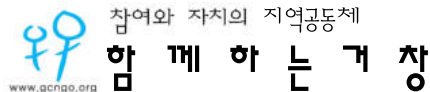


2018 정기회원총회



<함께 가는 길은 지치지 않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5.14일 주왕산 산행>

- ◆ 때: 2018년 1월 25일(목) 오후 7:00
- ◆ 곳: 함께하는거창 사무실



5012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길 74

전화 055-942-1117

팩스 055-943-1170

전자우편 cham1117@hanmail.net

누리집 <http://gcngo.org>

☒ 1월 25일 총회에 참석하실 때 이 자료집을 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총 회 순 서

- I부 -

사 회 : 김하주 사무국장

- 1.개회선언
- 2.공동대표 인사말
- 3.감사보고
- 4.2017년 결산보고
- 5.2017년 사업보고
- 6.2018년 사업계획(안) 보고, 의결
- 7.2018년 예산(안) 보고, 의결
- 8.기타 안건 토의
- 9.폐회선언

- II부 -

내빈인사 및 덕담나누기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합니다

공동대표 이기식

무술(戊戌)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엔 회원님의 가정에 복이 산처럼 쌓이고 하시는 일도 술술 풀리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이 총회를 맞이하다 보니 숙제 안 한 학생처럼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탄식만 하며 할 일을 미뤄 놓을 수도 없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이제 숙제 검사를 받아봐야겠지요.

다 아시죠? 1월 25일 목요일은 **함께하는 거창**의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겠지요.

아시다시피 총회는 **함께하는 거창**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홀로 남겨둔다면 꽃은 꽃의 모습을 잃고 시들어 버리고 말겠지요.

함께하는 거창의 꽃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구합니다. 이번 **함께하는 거창** 총회에 모든 회원님들이 모여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의 계획도 세우며 **함께하는 거창**의 활동에 대한 채찍과 당근을 주는 참여민주주의의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멋진 꽃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도 등대를 보며 갈 길을 찾아가는 배처럼 해야 할 일도 잘 모르는 집행부에게 길을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명언처럼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함께하는 거창**”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회의를 하다보면 너무 건조할 수도 있겠기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윤활유도 준비해 봤습니다. 많이 오셔서 가벼운 다과를 즐기시며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무술년의 1월.

다시 한 번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기식 드림.

감 사 보 고

감사 조 영 준

2017년도 **함께하는 거창**의 재정과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보고 드립니다.

1. 재정감사

① 2017년에 1월과 12월 잔액을 비교했을 때 잔액차이가 대략 450만원
이 차이가 납니다.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가장 중요한 재정이 바닥이 날 것입니다. 대
책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5,000원을 납부하는 회원은 대표나 사무국장이 전화해서 10,000원으로
증액시킵시다.

-회원명부 파악해서 회비가 중단된 회원도 다시 회비를 납부할 수 있
게 합시다.

② 회계장부에서 「작은은권리찾기, 인문학 서점 숲 후원금」은 별도로
관리합시다.

-작은권리찾기와 숲 후원금의 지출이 함께 표기가 되고 있는데, 오해
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두 단체의 회비수입과 지출은 내부보고용으로라도
따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③ 3월 지출에서 아림신문(30만원)과 한들신문(12만원)이 광고비로 지
출이 되었습니다. 회원 모집광고라고 하지만 운영위 동의 없이 지출한 사
안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시 운영위 동의를 꼭 받아야 하며, 급하게 집행할

시에선 단체특방에 보고 후 다음 운영위에서 사후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2. 사업감사

① 어려운 가운데 야유회, 소식지 발간, 단체영화관람 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② 2018년도에는 시민단체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며, 거창지역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함께하는 거창**이 되었으면 합니다.

촛불의 힘,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느낀 2017년이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은 바꿨지만 우리 거창의 정치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지방의회의 권력은 군민의 뜻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거창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는 한 해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거창**도 지방선거에서 역량을 집중해서 지역정치를 바꾸는 데 기여하도록 힘을 모읍시다.

그리하여 지역의 정치, 사회,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되는 거창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2018년이 거창에 변화의 싹을 틔우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7 회의록

2017 정기 회원총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7년 2월 2일 오후 19:30

2. 회의장소 : 광안리

3. 회의안건 : -.감사보고

-2017년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

-2018년 사업계획(안) 보고, 의결

-2018년 예산(안) 보고, 의결

-임원 개선

-기타 토의

4. 출석의원 :162명 중 54명(출석 26명, 위임 28명)

5. 회의내용

- 이점도 대표 인사말
- 이상황 감사의 감사보고
- 김하주 사무국장의 2016년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
- 김하주 사무국장의 2017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의결
- 김하주 사무국장의 2017년 예산(안) 보고 및 의결
- 임원 개선: 이기식 신임 대표 선출
- 이성호 공동대표의 퇴임사. 퇴임선물로꽃 바구니 및 문화상품권 증정
 - ※“정책위원장을 세워야 한다.”, “기존 대표 유임시에도 재신임 민주적 절차 필요하다”는 지적사항 나옴.
 - ※총평:사업비는 좀 들었으나(60여만원) 예전에 비해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음.

2017년 2월 2일



2017년 결산보고

● 회계연도:2017년 1월 1일~12월 31일(단위:원)

1자 본 현 황

자 산		부채와 자본	
현 금	7,536,997	차입금(-통장)	0
적금(퇴직적립금)	4,800,000	퇴직적립금	4,800,000
임차보증금	21,500,000	자 본 금	29,036,997
합 계	33,836,997	합 계	33,836,997

22017년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수 입		지 출		잔 액	
일반회계 (사무국)	46,147,626	일반회계 (사무국)	38,610,629	일반회계 (사무국)	7,536,997
장학사업특별회계	14,628,688	장학사업특별회계	14,050,120	장학사업특별회 계	578,568
합 계	60,776,314	합 계	52,660,749	합 계	8,115,565

3장학사업 특별회계

수 입		지 출	
후 원 금	13,400,000	장 학 금	14,050,000
이자수익	972	부대비용	
전년도 이월금	1,227,716	세금과 공과금	120
		현 금	578,568
수입합계	14,628,688	지출합계	14,628,688

4일반회계(사무국)

수 입			지 출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회비수입	26,840,000	인 건 비	급 여	19,200,000	
	후원금 (사무국)	760,000		상여금	700,000	
	후원금 (연구소)	2,130,000		퇴직적립금	1,200,000	
	후원금 (작권모)	1,810,000		복리후생비	2,361,370	
기타수입	이자수익	5,338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4,050,000	
	차입금	0		기기구입비	131,460	
	잡수입	2,568,000		사무용품비	15,980	
	전년도 이월금	12,034,288		세금과 공과금	2,827	
				소모품비	0	
				수선비	0	
				수도광열비	1,430,470	
				통신비	536,282	
				사 업 비	도서인쇄비	487,500
					발 송 비	255,420
					분 담 금	2,521,000
					사 업 비	4,199,250
					회원활동비	1,023,210
					회 의 비	309,500
			출장연수비		0	
			사업외비용	잡 비	186,360	
				예비비	0	
				현 금	7,536,997	
수입합계		46,147,626	지출합계		46,147,626	

5. 계정과목 설명

+

구분	계정과목	내 용
수 입	회비수입	회원 회비 수입
	후원금(사)	사무국 정기, 부정기 후원금
	후원금(연)	교육연구소 후원금
	사업수익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이자수익	예금통장 이자 수익
	차 입 금	-통장에서 빌려온 돈(부채)
	잡 수 익	수입항목이 없는 수입
	전년도 이월금	지난해 장부에서 넘어 온 현금
지 출	급 여	상근 실무자 급여, 활동비
	상 여 금	상근 실무자 상여금
	퇴직적립금	상근 실무자 퇴직 적립금
	복리후생비	4대 보험, 사무실 식대 등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건물관리비	사무실 월세
	기기구입비	각종 기자재 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비
	세금과 공과금	정부, 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
	소모품비	쓰레기봉투,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수 선 비	자산 유지, 보수 비용
	수도광열비	상하수도세, 전기세, 냉난방 비용(기름 등)
	통 신 비	전화, 인터넷, 문자메세지 발송 비용
	도서인쇄비	소식지 등 인쇄비, 복사비, 도서 구입비
	발 송 비	소식지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 택배비
	분 담 금	다른 단체와 연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사 업 비	각종 사업비용
	회원활동비	회원 송년회 등 회원활동을 위한 비용
	회 의 비	회원총회, 각종 회의 개최 경비
	출장연수비	교육, 출장에 필요한 비용
	잡 비	기타 계정과목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
	차입금 상환	-통장 상환 금액
	예 비 비	예비비
	현 금	현 금

● 자산변동 현황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자 산				부채와 자본			
구 분	2016년	2017년	증감	구 분	2016년	2016년	증감
현 금	12,034,288 (32.4%)	7,536,997 (22.3%)	-4,497,291	차입금	0	0	0
적금(퇴직적립금)	3,600,000 (6.8%)	4,800,000 (14.2%)	+1,200,000	퇴직적립금	3,600,000 (9.7%)	4,800,000 (14.2%)	+1,200,000
임대차보증금	21,500,000 (61.0%)	21,500,000 (63.5%)	-	자 본 금	33,534,288 (90.3%)	29,036,997 (%85.8)	-4,497,291
합 계	37,134,288 (100%)	33,836,997 (100%)	-3,297,291	합 계	37,134,288 (100%)	33,836,997 (100%)	-3,297,291

·현금: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현금.

·적금(퇴직적립금):월 10만원씩 총 120만원 늘어난 480만원입니다.

·임대차보증금:변동 없습니다.

·퇴직적립금:왼쪽 설명 참고하세요.

·자본금:함께하는기업의 순수한 자산입니다. 2017년에 비해 4,497,291원 줄었습니다.



2017년 사업보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

■ 청소년 장학사업

-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함께 선생님들이 멘토 역할을 담당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7년에는 26명(중학생 25명, 고등학생 1명)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 장학사업 회계는 사무국 회계와 완전히 분리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금과 예금이자 등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은 전액 장학사업에만 사용합니다.

■ 학교앞 교도소 반대운동

- 2016년 말 거창군에서 법무부에 대체부지 두 곳을 제안한 이후 움직임이 없다가 2.7~8일 이틀간 법무부에서 부지 실사 나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공석인 현 상태에서 눈에 띄는 진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24일 13:30 군청 상황실에서 남상 중산마을, 마리 오리골 주민, 범대위, 시민단체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교도소이전 간담회 개최.
 - 양동인:이전 당위성은 확실하다. 법무부 실사 때 이상한 기류 느꼈다. 빠른 시일 내에 목표달성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 임영수:추진상황 보고. 법무부는 1차실사 때 입지조건 많이 따짐. 2차(2.21~22일) 때는 마을주민 설문 받음. 교도소 유치 이유 등 물음. 주민선동 방식.
 - 임영만:23일 법무부 방문결과 보고. 법무부의 진솔한 뜻 파악 위해 상경했다. 설문문항 구성이 중요하다고 법무부측에 설명하고 거창군과 정보공유도 필요하다고 항의. 법무부, 법무부-거창군과의 신뢰관계엔 문제없다. 현장의 목소리 듣기 위해 갔었다. 이전의 신중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적정성 검토 과정으로 자연스러운 동향파악이 필요하다. 절대로 원안고수는 아니다. 3.13~17일 거창군과 실무미팅을 가질 계획이다.
 - 양동인:장애인단체에서 이전반대 서명운동 하는 것으로 안다.(참석 기

- 자들에게) 취재.보도는 자체 부탁한다. 엠바고 요청
- 백승안:장애인단체 아니라 몇몇 개인인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유치 세력 중심으로 조직적인 움직임 있다.
 - 중산주민:주민반대 움직임은 별달리 없다. 법무부 실사 때 싸웠다. 법무부측, '교도소는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군수의 선동이다.' 대체부지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인상 받았다. 마을의 유치동력도 떨어지고 있다.
 - 엄대이장:민원이 거의 안 생기는 지역인데 법무부가 민원을 조장하고 있다.
 - 양동인:법무부는 군에서 기한 내에 부지 마련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두 군데 제시하자 당황한 듯하다. 법무부의 이전반대여론 공작이지 싶다. '중산도 반대여론 있다. 원안대로 가자.'
 - 이점도:5월 대선 가능성 크다. 새 대통령 체제 하에서 법무부가 살기 위해 방패막이 만드는 듯하다. 법무부의 여론전에 너무 민감하지 않아도 될 듯. 법무부를 압박할 수 있는 지혜 모아야 한다.
 - 임영수:3월초 협의 때 주민반대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올 듯하다. 걸 만한 게 여론밖에 없는 듯하다.
 - 류현덕:범대위 회의 통해 대책 마련해보겠다.
 - 중산주민:여기까지 오게 한 범대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제는 범대위에만 맡겨둘 수 없다. 범대위에서 결정 내려주면 최대한 지원, 협조하겠다.
 - 류현덕:천막을 다시 치고 싶지만 선고유예상태라 어렵다. 법무부에 대안,복안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무부의 행태는 우리가 예상한 것이다. 답답한 조직. 300억원 편당모금. 법무부에 효과적인 공격 될 듯. 봄에 한번 해 보자.
 - 이점도:법무부의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폭로할 필요 있다. 주민들의 엉터리 여론조사 폭로 기자회견도 고려해 보자.
 - 양동인:1.폭로 기자회견 준비하겠다. 2.법무부 상대 투쟁(?)시 합법적 투쟁방법 많다. 찾아보자. 제가 앞장서겠다. 범대위의 더민주당을 통한 정치적 역할 기대한다. 법무부에서 교도소 부지이전 전제조건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 임영수: 채무 관련 사안은 군의회 동의를 필수인데 분위기가 비우호

적이다. 14일 임시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거창시사단과 범대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 백영도: 개인적 만남에서는 군의원들이 이전을 반대하지 않았다. 면담 및 방청 등으로 압력을 넣어야 한다.
- 이곤섭: 교도소 이전문제가 잘 해결될 줄 알고 범대위는 그동안 한발 물러나 있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데 시기를 놓쳤다. 이 문제는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 류현덕: 군의회와 대치되는 모양새는 자제해야 한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법무부가 요지부동이다.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임영수: 법무부에서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군의회 동의 및 군민합의를 요구했다. 연기는 우리가 요청한다고 법무부에서 순순히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다.
- 백승안: 대선 이후 연기가 아니라 군의회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타이밍이다. 군의원들이 부정적인 이유는 사전보고만 있고 동의를 구하지 않아서였다. 같이 나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 양동인: 기존 법조타운은 군의원들의 동의하에 추진된 것이다. 법무부의 언질이 있어야 군의원들 설득이 가능하다.
- 김은옥: 지금은 군의회 압박이 아니라 손 내미는 제스처가 필요하다. 법무부에서도 문서로 확약한 게 없다.
- 백영도: 논리로 해결 안 되는 일도 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 유영재: 군의회를 압박하는 방식으로만 관철되지 않는다. 대승적인 기조로 군의원들을 동참시켜야 설득 가능하다.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다급해졌다.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 거창군을 재촉하는 것이다.
- 류현덕: 여론 환기해 군의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겠다. 법무부의 (이전)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범대위도 군의회를 설득하겠다.
- 백승안: 법무부의 최종결정을 정치적 작업을 통해 미루는 방안은 어떤가.
- 양동인: 법무부도 원안고수보다는 이전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듯한데, 선행 조건이 군의회 승인이다.
- 유영재: 군의회 동의를 못 얻더라도 법무부가 원안으로 되돌리지는 못한다.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

- 양동인: 군의원들이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명분 제공이 필요하다.
 - 임영수: 군의회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결론: 4.6일 14:00 양동인 군수와 법무부 간담회 이후 보고회 다시 열기로 함. 군의회에 동의안 상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4.6일. 법무부, 거창군에 ‘이전 불가 통보’
- 4.12일. 범대위,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무능하고 군민 기만한 양동인 군수는 물러날 것 요구. 앞으로 시한을 두고 의지와 진정성을 지켜본 연후에 전군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
- 4.12일 19:30 거창YMCA 3층 강당에서 법무부의 부지이전 불가통보와 관련한 범대위 상임대책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 4.13일 10:00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 4.14일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거합산합지역위원회에 교도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후보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지역위원회를 경유해 도당에 전달됨.
- ※작년 9월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통합축제한마당 현장에 설치한 교만부스를 찾아 범대위 집행부와 대화를 가진 바 있음.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거창군민이 바라는 데로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힘.
- ※문재인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박범계, 이춘석, 전해철, 박영선 등이 물망에 오름. 범대위 집행부는 현재 활동 전무 상태. 신임 법무부장관 면담 요청 등과 관련해 범대위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 지역위원회에 역할을 기대해야 하는데, 거창시사단이 소통채널 기능을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듯.
- 7.20 11:00 교도소 부지공사 평탄작업 관련 항의방문&면담(홍정희, 유영재, 김하주)
- 업체측: “지난주부터 장비가 들어와 대기하고 있었으나 비가 와서 연기됐다가 오늘 투입한 것. 통상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일부 부지 보상이



있어 공사를 진행한 것”

- 거창군측: “부지 보상 미집행 금액 67억 원 중 15억이 집행되며 보상된 부분에 대한 정리 작업이라 공사 재개나 착공으로 보기엔 무리”
- 법무부에서 공사추진 유보를 업체 측에 전달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 오해를 삼.

-9.13일 09:30 변상원 군의원 5분발언(‘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 주장) 관련 항의방문. 본회의 방청 후 변상원 의원 사무실 항의방문(이점도, 이곤섭, 김홍섭, 이순정, 김하주).



- 이점도: 군민 목소리 반영해 발언하라. (지역구 노인층보다)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
- 이곤섭: 성산마을 부지는 거짓서명부에 근거한 것이다. 이후 임영수 창조산업과장 면담.
- 임영수: 군의회가 최후의 걸림돌이다. 법무부가 군의회의 포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 이점도: 법무부의 이전선언이 필요하다. 이를 이끌어내야 한다.

-9.25일 18:30 거창군&민주당&비대위, 귀빈식당에서 간담회.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시내 곳곳에 교반 현수막 게시작업. 10.1일 게시, 10.11일 읍사무소에서 철거.

-10.11일 학교앞 거창교도소 문제가 국무조정실의 25개 갈등과제 리스트에 포함됨으로써 본격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보임.

-10.1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창방문이 예정되었으나 28일로 연기됨.

-10.26일 오전 11시 거창군의원 9명(김향란, 형남현 의원 제외한 전원)이 군의회 앞에서 거창교도소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함.

-10.27일 오후 2시 김태경 연소주지부장이 군청 옥상에서 현수막 내려 걸고 군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함. 이후 김종두 군의장 항의방문.

-10.28일 이낙연 총리의 방문에 맞춰 중산마을 주민 등과 함께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방문이 취소됨에 따라 열리지 못함. 이날 추진위 측

에서도 맞불집회를 계획하고 있음.

-11.23일 19:00 흑송에서 교반 범대위 집행부 구성 및 향후 대책 논의.

참석자:이점도,송성동,정성순,김홍섭,이순정,임영태,김하주,하동근

안건1.집행부 역할 분담 및 공식 집행부를 가동

상임대표:송성동,정성순,김상택,김홍섭 / 사무국장:이순정 / 사무국
원:임영태 김하주 하동근 / 홍보국장:정연탁 / 선전국장:이점도,
기타 국장은 섭외되는 대로 함께한다.

안건2.향후 계획

1)거짓서명부 관련자(이흥기, 이환철, 유태정 및 이장)들을 위계에
의한 공문서 위조로 고발하는 방안 추진—거창시사단, 함께하는
거창, 범대위

2)28일 거창군과의 토론회에서 강력한 주문을 한다.(군수는 투쟁
할 것, 여론조사 등 이전 근거를 마련할 것 등)

3)법무부, 강석진 의원, 군의원, 양군수를 여력껏 압박한다.

-11.28일 20:00 군청 대회의실 군민토론회 개최

- 양동인 경과보고: 법무부의 외곽이전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 결국
올해 4.6일 원안추진 통보를 받았다. 교도소를 이전하지 못한 데 대
해 죄송스럽다.

- 백영도: 기자회견 군의원 행태 이해못하겠다. 밤샘토론하고 싶다. 주
민투표 하자.

- 양동인: 국책사업은 주민투표 불가.여론조사 가능.

- 홍정희: 민주당 당론은 주민 뜻 따른 이전. 공론화위원회 및 여론조
사 통해 주민 의견 모아야.

- 이점도: 이전 요구하는 군민들의 힘 보여줘야 한다.

- 임영태: 교도소 당시 관련자들이 현재는 어떤가? 행정적 책임 진 경
우 있나? 부지매입 현황은?

- 백영도: 범대위가 다시 나서야 한다.

결론: 민간주도 공론화위원회 꾸리기로 함. 준비위원장: 이점도, 홍정
희, 백영도, 성인택

-12.15일 공론화준비위, 국무조정실과의 면담에서 ‘거창 내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구치소 건립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국무조정실 관계자의 발언 소개. 새로운 국면 맞이함.

-12.16일 18:00, 거창읍 민주광장에서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앞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피케팅



-12.25일 17:00 광안리에서 거창구치소 공론화준비위원회 주최로 간담회 개최. 현재 공론화준비위에 원안찬성 측의 참여가 없는 상태. 거창군에서 2차 토론회 개최해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구하는 것으로 결론.

■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7. 25일 11:00 군청 브리핑룸.

-함께하는거창, 거창YMCA, 푸른산내들, 거창군농민회 명의
로 성명서 발표.



-연극제 파행의 근본 원인으로 연극제의 운영을 맡아 개최해 온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거창군민의 신뢰를 상실한 점 지적. 부적절한 공연비 지출 증빙자료, 보조금 전용 집행 사례, 협찬금 정산상 문제점, 보조금으로 진흥회 부채상환 등.

-요구사항: △거창군과 진흥회는 명목상으로나마 공동주관의 형식을 갖춰 대외적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할 것 △문화재단이 개·폐막식을 주관하되 진흥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 △‘거창국제연극제’ 명칭 사용을 제한 없이 보장할 것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티켓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관객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통합해서 시행할 것 △통합운영은 불가능한 시점으로 공연일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 △연극제 이후 관련 단체와 민·관이 모인 군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연극제 관련 논의를 새롭게 할 것.

■ 강석진 의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12월 12일 오후 2시 이점도 대표와 김하주 사무국장, 함께하는거창 명

의의 공개질의서를 거창사무소에 전달. 내용: 학교앞 교도소에 대한 현재의 강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군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강 의원의 암묵적 동의 내지는 지시가 있지 않았나?(12.23일까지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

-12월 27일 오후 1시 공개질의서에 대한 미답변을 성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오석환 사무국장에게 전달. 20분 가량 면담.

■ 조급살계곡 석산문제

-5년간의 사업 종료 시점을 맞아 사업자 측에서 목표량 미달을 이유로 재허가를 신청했으나 작년 11월경 1차로 군에서 석산사업 불허.

-1월 4일 이점도 대표와 김하주 사무국장, 이순정 푸른산내들 간사가 가천마을회관에 들러 주민들과 대화. “사업이 무산되면 사업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뜬소문이 돌고 있음을 확인. 김하주 사무국장, “군수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여러분의 반대의지만 확고하다면 막아낼 수 있다.”

■ 보조금 형형 고발인 조사

-2.8일 16:00 김하주 사무국장, 2호점사실에서 김진옥, 김규복, 김종두 3인에 대한 고발장 접수(16.10.27. 보조금 횡령 및 관리감독 부실)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 받음. 5.5일 11시 2차 고발인조사 받음

■ 침류정 술판 건 군정 형의방문

-5. 15일 19:00 광안리

-참석자: 이점도, 이이화, 김영석, 박중현, 김하주 /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담당주사

-강변축제 기간 중 침류정에서 술판 벌어져 언론에 보도됨.

-이에 대한 항의와 재발방지 요구. 군-전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이이화, 김영석-이주환 열사 순국 100주년을 앞두고 침류정 정비 및 기념사업 제안. 군-용역실시 의사 밝힘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

■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거창시사단) 활동

-1.19일 18:30 거창시사단 신년모임, 광안리

- 참석자:이점도, 박춘옥, 정성순, 김홍섭, 윤동영, 이윤정, 이윤경, 김하주, 이순정, 배경숙, 윤철, 김기오, 정은주, 임영태
- 회의결과:대선이 3~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거창시사단은 정권교체와 야권후보단일화라는 큰 대의에 동의하며, 대선과 관련된 각 단체의 활동은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3.21일 16:00 군청상황실에서 거창시사단&양동인 군수 간담회

- 양동인: 오늘 이 간담회가 군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 모두가 군정이 잘 되고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 김○○: 우리 거창시사단도 군에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
- 양동인: 그동안 시민단체는 좌파, 관공서는 우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민단체는 군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미지가 각인돼 실제와의 간극으로 인한 오해가 있었다.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이 옳으냐가 중요하다.
- 김○○: 지금까지의 군정은 소통부재로 일방적이었다. 시민단체의 각종 위원회 배제가 대표적인 예다.
- 유○○: 실제 시민단체 활동은 발목잡기가 아닌 건전한 비판 및 대안 제시였다. 거버넌스, 협치 차원에서 사업 논의단계부터 의견을 수렴할 채널이 필요하다. 이흥기 전 군수가 시민단체를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절차적 참여의 길이 막혀 버렸다. 이를 복원시켜야 한다. 이래야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싸움이 안 난다.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 양동인: 위원회 부분은 정확한 실상을 모르겠다. 데이터를 제출하면 복원토록 노력하겠다. 기본적인 사항에는 찬성한다.
- 김○○: 우리 작은권리찾기모임은 죽전근린공원과 관련해 좋은 기억이 있다. 지역주민과 작권모가 협의해 사업수정을 제안해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 양동인: 창포원을 같이 고민해 보자. 내가 몇 번 주문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정답을 못 내놓고 있다. 20만 평의 대규모사업이다. 규모가 중요하므로 대단위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성공을 확신한다. 봄, 여름 등 철마다 꽃단지 조성이 어렵다. 흙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 김○○: 도내의 진주수목원, 금원산 식물원을 만든 분이 도청에 근무하고 있다. 이분의 자문을 받아도 충분할 것 같다.
- 양동인: 사전 문제제기가 중요하다. 순천만 갈대밭은 세계적 명소로 자리잡았다. 거창창포원도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명소로 키우자. 이름도 ‘창포원’에서 다른 걸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 거창시사단에서 멋진 이름을 지어 달라. 올 여름 개장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년 여름쯤 가능할 듯한다, 개장 이전에 좋은 이름을 붙이자. 앞으로 거창은 관광(환경) 쪽으로 가야 한다.
- 배○○: 창포원은 어떤 철학을 갖고 사업에 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버스요금 단일화에 감사드린다. 관광산업보다 농업(활성화)이 더 중요하다. 농민기본소득 등도 점차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 양동인: 농민이 잘 살아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한다. 거창군의 농업에 대한 관심은 평균 이상이라고 자부한다.
- 유○○: 발전철학에 대한 공유가 중요하다. 거창의 하천복원 사례는 대외적으로 자랑할 만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거창이 메카’라는 게 대체적인 외부의 평가다. 양군수께서도 관심 갖고 챙겨 주시라.
- 양동인: 개인적으로 월성계곡이 거창의 최고 자랑거리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비경이다. 하천에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
- 이○○: 협동조합이 거창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설립 등이 군 소관이다.
- 양동인: 협동조합 활성화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경험상 관 주도사업은 잘 안 됐지만 협동조합은 자발성을 특징으로 하기에 그렇지 않다.
- 이○○: 양군수께서 2008~10년 재임시 협치가 꽤 잘 됐다. 시민단체와 군의 관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가조면 등산코스의 산자락 개발이 너무 심하다. 산을 보호하는 형태로 나가야 한다.
- 김○○: 간담회를 정례화했으면 좋겠다.
- 양동인: 주기는 분기별 1회, 연 4회 열도록 하자.

-4.18일 19:00 광안리, 거창시사단 회의

- 참석자: 윤철, 최광재, 김상택, 김태경, 정성순, 이점도, 송성동, 김하주, 이순정, 추연숙
- 이점도: 김하주 범대위 사무국장 사임. 범대위 집행부의 군수와의 결별선언은 전성은 공동대표와 입장이 다르다. 이 상황에서 시사단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 김상택: 시사단 독자로 교반 동력이 가능한가?
- 김태경: 원죄는 강석진 의원이다. 시사단은 범대위와 별도의 활동, 역할분담이 필요할 듯하다. 현 범대위 내에서는 시사단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
- 김상택: 범대위 의사결정과정의 사유화된 듯하다.
- 결론:
 - ▶ 범대위와 협력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시사단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
 - ▶ 대체부지는 주민이 원하는 곳을 밀어주면 된다.
 - ▶ 대선후보들에게 교도소문제 관련해 문건 발송하고 받은 회신으로 시사단 입장정리하는 방안 검토.
 - ▶ 협의를 법무부가 일방적 파기했다. 원점에서 논의하자.
 - ▶ 대선 때까지 시사단에서 할 수 있는 일 찾아보자.
 - ▶ 민주당 집권이 교도소문제 해결의 최선책이란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5.24일 10:30 류영수 엄벌을 청원하는 진정서 제출

창원지법 거창지원 청사 앞에서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름으로 약식 기자회견 후 창원지검 거창지청 및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각각 진정서 제출.

-8.31 19:00 광안리, 거창시사단 회의

- 참석자: 이점도, 송성동, 김홍섭, 유영재, 윤동영, 정성순, 임영태, 이순정, 배경숙, 김태경, 송만호, 윤철, 김하주
- 회의결과
 - 안건1: 연극제 관련
 - 결론: ▶ 거창군에서 구성하는 연극제위원회 예비모임까지 이점도, 유영재가 조건부 결합한다.

- ▶ 인적구성을 각계각층을 두루 망라해 형평성 있게 꾸릴 것을 건의한다.

안건2: 세월호 문화제

매월 세월호의 날(16일)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 결론: ▶ 현재 형식으로 추진하되 개별 주최를 원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 배정한다.(현재 개별 주최를 원하는 단체는 여성회, 어도연)
- ▶ 연간 행사(4.16일)에는 전 단체가 결합한다.

안건3: 영화 ‘공범자들’ 공동상영

결론: ▶ 언소주거창지부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전담한다.

- ▶ 각 단체에서 관람자를 모집하고, 관람료는 1인당 5천원으로 한다.(단체상영시 6천원, 1천원은 언소주에서 부담한다.)

안건4: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거창시사단의 역할

결론: ▶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와 중선거구제 도입 등 굵직한 사안은 시간을 두고 고민한다.

- ▶ 지방권력쟁취(교체)특위(가칭)를 구성하고 유영재에게 구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 ▶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단톡방에서 공유한다.

안건5: 학교앞 교도소 문제

결론: ▶ 거창시사단의 입장은 “1. 학교앞 교도소인 현 성산마을 건립을 반대한다. 2. 거창시사단은 교도소 대체부지와 관련해 법무부와 거창군의 합의 결과를 수용한다.”로 정리한다.

- ▶ 입장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수막을 게첨하며, 각 지역신문에 기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린다.(기고자: 윤철, 유영재, 김태경...)
- ▶ 거짓서명부 수사촉구를 위해서 거창시사단에서 적극적인 off활동을 펼치고(항의방문, 피케팅...), 시사단 각 대표들과 거창지청장 면담을 추진한다.(면담일정은 김하주가 잡는다.)
- ▶ 학교앞 교도소반대 서명부와 활동상황을 정리해서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한다.(관련자료 정리는 김하주가 맡는다.)
- ▶ 교반활동과 관련해 거창민주당과 거창시사단 간 창구 역할은 유영재가 전담한다.

기타안건: 거창시사단 공동계좌 개설

결론: ▶ 거창시사단 사업추진 시 부족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단체들이 매월 분담금을 납부해 기금을 적립한다.

▶ 월납입 분담금 액수는 각 단체의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맡기되 월 1만원 이상으로 한다.

- 9.17일 19:00 광안리, 거창시사단 회의

- 참석자: 이점도, 전성애, 홍정희, 임영태, 김하주, 송성동, 정성순, 김홍
섭, 하동근, 김상택, 유영재, 이숙형, 추연숙, 윤철, 김향란
- 이점도: 교도소 문제와 관련해 상황이 긴급해졌다. 지금 시점에서 거
창시사단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파악을 먼저 하자.
- 유영재 브리핑: 청와대에서는 학교앞 교도소 부지선정이 거창군의 잘
못이지 법무부가 행정 절차상 잘못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 이것으로 법무부를 압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이 진행되었더라
도 다수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법무
부의 걱정은 이전부지에서 새로운 분란이 생기는 것이다.

남은 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 이전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면 곤란하다. 현재 중산마을에 두 건
의 민원이 남아 있지만 성산마을과는 민원의 성격이 다르다. 중산마
을 민원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민원이다.

둘째, 부지이전이 거창군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거창군은 충분히 준비돼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 이전하려면 다수의 주민이 이전을 원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것은 거창군의회 부지이전 촉구결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게 어렵다면 대체안을 고려해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원안 추진은 보류(잠정중단)된 상태다.

- 이점도: 청와대나 법무부의 입장은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 김향란: 3주 전 군의회에서 원안추진결의안 채택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의안 채택은 전원이 찬성해야 가능하기에 무산됐다. 우리 쪽에서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군수도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씩 접촉해 설득해야 한다.
- 홍정희: 우리가 행동해야 법무부에서 움직일 수 있다. 즉,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이다. 도당에서 양군수를 움직이

는 게 중요하다.

- 이점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니다. 우리의 대오를 갖출 필요가 있다. 우리 집행부가 없으니 일을 할 수가 없다. 교반운동 추진에 있어 시사단 내에서 별도의 집행부를 꾸릴 것인가, 아니면 비대위를 구성하여 범대위 집행부를 꾸릴 것인가를 고민하자.
- 홍정화: 기구를 어떤 형식으로 꾸릴 것인가? 시민단체 내에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민주당도 움직일 수 있다.
- 송성동: 집행부를 꾸려야 하는 시점이다. 어떤 형태가 되던 시사단 중심으로 가야 한다.
- 정성순: 실리가 중요하다.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범대위로는 어렵지 않을까?
- 김상택: 범대위 배제는 맞지 않다. 공동대표의 의지만 있으면 새로 집행부를 꾸릴 수 있다.
- 윤철: 시사단이 비대위에 참가해 집행부를 재구성하려면 시사단이 주도해야 한다.
- 이점도: 시사단에서 2~3명의 비대위원을 추천해서 새 집행부를 꾸리는 것이 전성은 공동대표의 의견이다.
- 추연숙: 학부모들이 없었으면 교반운동을 못 끌어 왔다. 움직이려 하면 학부모조직 없이는 운동이 안 된다.
- 이숙형: 학부모들의 공로는 충분히 인정한다. 지난 번과는 달라야 한다. 또 시사단만으로는 안 된다. 외연을 넓혀서 범군민 아우르는 보편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
- 유명재: 시사단이 새 조직의 씨앗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조직에는 강남지역 인사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결 론
 1. 교도소 부지선정과 관련한 거창시사단의 입장
 - 학교앞 교도소는 안 된다.(거창시사단은 중산마을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산마을을 반대하는 것이다.)
 - 민원이 적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2. 거창시사단에서 이점도, 정성순, 송성동, 김상택 4인의 비대위원을 추천한다. 이들이 공동대표의 동의 하에 새 범대위 집행부를 꾸린

다.

-10.26일 19:00 광안리, 거창시사단 회의

- 참석자: 이순정, 이점도, 정성순, 김상택, 김태경, 홍정희, 송성동, 김하주, 백승호, 이정훈, 정광희
- 홍정희: 여세 몰아서 군의원 작태 고쳐야. 토요일에 군의원 규탄대회 열자. 거짓서명부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압박도 방안.
- 이점도: 토요일 집회가 가능할까?
- 정성순: 어렵다. 사람을 모을 수가 없다. 이미 공지된 집회를 취소 공지해놓은 터라...
- 김태경: 11.6일을 디데이로 군의회 항의방문 및 점거농성하자.
- 이점도: 시사단 입장 정리해 발표하자.
안건1.결론—집회는 연기한다.
안건2. 집행부 구성건
- 송성동: 비대위로 계속 가는 건 좋지 않다.
- 이점도: 집행위원장 세우자.
- 김상택: 실무자(사무국장) 체제로 가자. 의사 타진해 시사단 대표 중 상임대표 선출하자.

■ 거창군의정지기단 활동

-7.4일 저녁 7시 거창YMCA에서 첫 예비모임.

- 참석자: 이점도, 김홍섭, 유영재, 우지호, 이순정, 김하주, 우경화, 전평화 외 학부모 2명. 인적 구성은 거창YMCA,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위주.
- 공식명칭은 ‘거창군의정지기단’으로 정함. 공동단장에 이점도.김홍섭, 책임간사에 김하주. 구혜령 전 거창YMCA 부이사장, 이민욱 변호사 외 건설/토목전문가, 퇴직 공무원 및 군의원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섭외기로 함.
- 7월 17~21일 사이에 발대식 계획. 이후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기로 함.



- 7.19 10:30 거창YMCA 3층 회의실에서 거창군의정지기단 발대식
 - 참석자: 표정숙, 이점도, 김홍섭, 장상철, 이순정, 정은주, 우경화, 김하주, 임기정, 이경진, 우지호 외 학부모 2명.
 - 이점도 인사말—표정숙 격려사—결의문 낭독—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의 강연 '주민참여와 바람직한 지방자치' 순으로 진행.
 - 출범식 후 보도자료 작성해 각 언론사에 배포.

■ 정권교체를 위한 거창유권자모임 활동

- 1.23일 19:00 광안리에서 조기대선 대비 모임. 이점도, 김기오, 박보건, 김하주, 신용균, 이상재 참석.
 - 대선대비 유권자모임. 단체결합 대신 활동가중심 결합형태로 온라인 위주 활동하기로.
 - 신용균—정치에서 정당 아닌 시민단체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고유의 정체성과 조직을 가지고 나가야.
 - 이점도—지역의 대선배들이 이런 사안에 나서줘야 한다.
 - 신용균—각 조직별 인원을 할당, 결합해 띄우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동안 비축 된 인력들을 총동원하자.
 - 명칭을 <정권교체를 위한 거창유권자모임>으로하기로 함.
- 2.7일 19:30 그다방프로젝트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거창유권자모임 '동행17' 출범식.
 - 참석자:이성호,이점도,이수구,신용균,김홍섭,홍정희,김순기,최광재,정재원,장수범,김순남,손은자,이춘옥,이순정,전기호,하동근,정영주,임영태,김하주,이진웅,백승모,강우석,추연숙(23명)
 - 새날 홍정희 축사겸 연대사→이점도 경과보고→정영주 노래공연(진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이점도, 공동대표 추인&인준. "오프보다 온라인 활동이 위주다. 신용균 대표수락연설."목표는 하나다. 정권교체"→1천명 유권자 행동결의→전기호 목사님 노래공연 (내 가는 이 길 험난하여도, 그대 오르는 언덕)→김홍섭 선언문 낭독
 - 공동대표:김태경,김홍섭,정쌍은,박희숙,신용균,한대수,우성만,이한철,김기오,조재영,신승열,우지호,이형원,이상재,(백광석),이점도.

■ 거창예국군민모임 활동

- 1.14일 18:00 로타리에서 시국집회.
영상 상영, 유영재 자유발언, 정영주&아이들, 조경주 노래공연
- 1.21일 18:00 로타리에서 시국집회 대신 광화문 집회현장 실시간 중계.
- 2.4일 18:30 로타리에서 시국집회
- 2.18일 19:00 세월호&시국집회. 영상 상영, 조경주 노래공연, 윤효정 학생(윤동영&최외순 장녀) 발언.
- 2.25일 17차 민중총궐기 참가.
더민주 2, 농민회 1, 애국군민모임(시사단 37명) 1대.
최○○ 회원, 농민회와 거창애국군민모임에 각 30만원씩 찬조.

■ 세월호 촛불문화제

- 1.9일 18:30 세월호 1천일 추모 촛불문화제. 로타리 민주광장.
영상상영, 이은정 자유발언, 전기호 노래공연, 정연탁 시낭송
- 1.16일 18:30 로타리에서 세월호 추모 촛불 피케팅.
- 2.16일 18:30 로타리에서 세월호 추모 촛불 피케팅.
- 2.18일 08:00 로타리에서 팽목항 방문 출발.
- 3.16 18:30 로타리에서 세월호 추모 촛불 피케팅.
- 4.16 18:00, 세월호 3주기 촛불문화제 / 거창읍민주광장 무대
18:20 거리행진(로타리→대동로타리→2교→1교→로타리)
19:00부터 분행사:
난타공연(우문연)→청소년발언1(김홍준.대고3)→청소년발언2(허민)→이예담 학생 노래 '거위의 꿈'→여성회 공연. 바람이 불어오는 곳,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플래쉬몹→청소년발언3(정유빈.여고3)→하귀영 회원 살풀이
- 5.16 19:00, 세월호 촛불문화제 / 거창읍민주광장
김기중 노래공연, 정연탁 자유발언, 최윤희 노래공연, 더민주당 홍정희 발언, 셋별중 학생 45명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노래공연, 고 김초원 선생님 아버지 김성



욱 님 발언.(문재인 대통령의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지시 이후)

-8.16일 19:30 세월호 촛불문화제 / 거창읍 민주광장

영상 상영, 자유발언(김훈규, 김재영), 공연-조경주&신영택(바람만이 아
는 대답, 화인) 정영주(바람에게, 벗이여 해방이 온다)

행사 후 뒤풀이 자리에서 향후 문화제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논
의. 각 단체별로 매월 돌아가며 말자는 나눔. 각 단체별 논의 후 결론
짓기로 함.

-10.16 19:00, 거창읍 민주광장. 여농 주관.

추모목념→박재선 발언(반GMO)→영상→윤동영 발언(쌀관련)→임순란
노래공연(바람아 불어라 외1)→여성농민 3인의 대담형식 발언

-11.16 19:00, 거창읍 민주광장. 세월호 추모 촛불 피케팅.

-12.16 18:00, 거창읍 민주광장. 세월호 추모 촛불 피케팅.

■ 평화기원 성주음악회 참가

-7.12일 버스 1대로 18:30
로타리 출발

-어른 20, 아이 10여 명
참가

-사무국에서 후원금으로
10만원 찬조



기 타 활 동

■ **함께하는거창&작은권리찾기모임&거창시사단 연합야유회**

- 5.27 13:00, 거창스포츠파크 족구장 옆
- 비용: 444,210원 지출.(함께하는거창 사무국 20만원+작권모 244,210원)
-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전국교사모임에 농번기가 겹쳐 참석 인원은 예상(50명)보다 10명 정도 적은 40명 가량.



■ **거창읍 풍로 3-2호선 보행로 가로수 문제**

- 6. 21일 16:00 상황실에서 중로 3-2호선 보행로 정비공사 설명회 개최.
- 문제가 되는 구간은 농업기반공사-5교구간으로, 보도가 좁은 데가 가로수가 있어 휠체어나 노인층이 이용하는 유모차가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다니는 상황.
- 시민단체에서는 김홍섭, 유영재, 이순정, 김하주 참석.
- 주민들은 모든 가로수를 제거할 것을 요구. 이에 시민단체 측에서는 주민불편은 이해하지만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가로수는 살릴 것을 군에 권고.
- 설명회 후 현장으로 이동해 가로수를 기준으로 보도 폭을 실측. 자료를 군에 제출함.



■ **영화 '백사운전사' 반기**

- 8.17일 20:00, 참가자 성인 44명, 학생 9명(30인 이상 단체관람시 성인

6천원, 학생 5천원)

-사업비: 30만9천원

-정연탁 원장이 개별적으로 모은 28명과 동시 관람.

-가족단위 관객이 많았음. 평소 참여하지 않던 회원들이 다수 신청.

■ 함께하는거창 2017 회원 송년의 밤

-일 시: 12.08(금) 19:00, 장소: 퓨전포차 거기

-참석인원: 연인원 45명 가량

-사업비: 주류 및 안주대(거기)-816,500원

김밥, 과일, 마른안주-136,250원

공연팀 출연료-70,000원 / 합계: 1,022,750원

-손승미 씨 사회로 이기식&
이점도 대표 인사말, 문대성
&박혜숙 님의 클라리넷 연
주와 노래, 김하주 사무국장
의 클래식기타 연주, 건배제
의 순으로 진행



푸른 숲

우리 지역의 가까운 산과 전국의 명산을 찾아 자연과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회원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가 안내(회장: 이기식, 산행대장: 백철우)

■ 1월 신년산행 황경재

- 1.날 짜: 2017년 1월 22일
- 2.참 가 자: 이기식, 김영수, 신용균, 이종현, 백철우 5명
- 3.코 스: 송계사 ⇨ 황경재 밑 ⇨ 송계사
- 4.산행시간: 3시간

■ 2월 경기산행 장군봉

- 1.날 짜: 2017년 2월 19일
- 2.참 가 자: 이기식, 신용균, 김미옥, 남연수, 강덕재, 서대림, 박희숙, 백철우(8명)
- 3.코 스: 고건사 주차장 ⇨ 고건사 삼거리 ⇨ 장군봉 ⇨ 아래봉 ⇨ 고건사 주차장
- 4.산행시간: 5시간

■ 3월 경기산행 만물상

- 1.날 짜: 2017년 3월 20일
- 2.참 가 자: 이기식, 김영수, 윤철, 김미옥, 남연수, 서대림, 조영준, 김순남, 류지청, 백철우(10명)
- 3.코 스: 만물상 주차장 ⇨ 서성재 삼거리 ⇨ 만물상 주차장
- 4.산행시간: 시간

■ 4월 반기산행 해남 달마산

- 1.날 짜: 2017년 4월 9일
- 2.참 가 자: 이기식, 김영수, 신용균, 이창희, 백철우(5명)
- 3.코 스: 미황사 주차장 ⇨ 달마봉 ⇨ 대쪽삼거리 ⇨ 미황사 주차장

4.산행시간: 3시간

■ 5월 정기산행 청송 주왕산

1.날 짜: 2017년 5월 14일

2.참 가 자: 이기식, 김영수, 윤철, 김미옥, 서대림, 김순남, 류지청, 백철우, 방창희 가족, 이창희, 정은주 등(33명)

3.코 스: 절골☞가메봉☞주봉☞대전사(산행팀 코스. 산책팀은 오전에는 주산지, 오후에는 대전사 계곡 산책)

4.산행시간: 6시간

■ 6월 정기산행 내장산

1.날 짜: 2017년 6월 6일

2.참 가 자: 김영수, 이창희, 신승렬, 백철우(4명)

3.코 스: 내장사 ☞ 연지봉 ☞ 신성봉 ☞ 내장사

4.산행시간: 3시간

■ 9월 정기산행 민주지산

1.날 짜: 2017년 9월 17일

2.참 가 자: 이기식, 김영수, 이창희, 이만화, 김미옥, 남연수, 백철우(7명)

3.산행코스: 물한계곡 주차장 ☞ 민주지산 ☞ 석기봉 ☞ 물한계곡 주차장

4.산행시간: 6시간

■ 11월 정기산행 치말목산장

1.날 짜: 11월 19일(일)

2.참 가 자: 이기식, 김미옥, 유계숙 부부, 김순남 부부, 백철우 부부(8명)

3.산행코스: 새재마을 ☞ 치말목 산장 ☞ 새재마을(약 10km)

4.산행시간: 4시간

■ 푸른숲 송년회

-.일시: 12월 17일(일)

-.장소: 광안리

작은권리찾기모임

일상생활 곳곳에서 부딪치는 작은 권익 문제를 찾아내고,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현실을 개선하여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회참여의 기쁨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슴 뿌듯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 김기오, 총무:)

■ 1월 신년모임

- ▶ 1.10일 19:00 대성복점에서 작권모 신년모임.
- ▶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심순애, 이곤섭, 이점도, 류현덕, 김도연, 임영태, 이순정, 장상철, 정은주, 김하주, 백승모, 이진웅(14명)
- 8:25 양동인 군수 방문. 인사말, "여러분이 있기에 거창의 미래 밝다."
- 김기오: 작권모 소개. 죽전근린공원, 신호체계, 보행권 소개. 군계획위원회 위원 문제제기.
- 양동인: 군정에 시민단체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자는 게 내 생각. 시민단체의 칼날로 군정을 자극시키는 게 필요하다.
- 임영태 급식문제 제기, 이순정 조금실계곡 문제 제기.
- 양동인: 교도소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다. 문화재단을 설립해 엘시스테마 같은 음악교육을 생각 중이다.
- 김기오: 올해부터는 제대로 된 작권모사업 하자. 매 모임마다 활발한 토론/논의돼야. 올해 서너 건만이라도 해결하는 작권모 되길.

■ 3월 월례모임

- ▶ 4.4일 19:00, 광안리
- ▶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윤철, 심순애, 박고희, 전병준, 임영태, 김하주(8명)
- 전병준: "시민현장 조례 제정 추진해 보자. 자료는 내가 준비하겠다."
- 작권모 제안, 함께하는거창 운영위 안건 상정. 통과, 시사단 결의 형식으로.

-윤철: “함께하는거창의 께창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주민참여예산제와 학교급식이다. 자치현장조례도 함께하는거창의 중요한 사업으로 보인다.”

-5.13일 봄 야유회 개최하기로. 장소는 추후 결정.

■ 4월 월례모임

▶ 4.25일 19:00, 대성복점

▶ 참석자: 김기오, 최광재, 박고희, 정은주, 장상철, 박덕제, 백승모, 김하주(8명)

-함께하는거창 회원과 함께하는 봄 야유회 건 논의

-당초 계획했던 5.13일은 대선 직후라 시기적으로 어려울 듯. 가을 개최는 너무 늦은 감이 있고, 5월말이나 6월초도 괜찮다.

-5.27일(토)로 잠정 결정, 장소는 추후 물색

-작권모 소통채널로 기존 밴드 외에 카톡방을 새로 개설한다.

-박덕제: “교도소문제 등으로 묻혀버린 작권모 본연의 모습이 그림다. 올해 되찾자.”

■ 5월 월례모임

▶ 5.27일 야유회로 대체해 열리지 않음.

■ 6월 월례모임

▶ 6.27일 19:00 대성복점

▶ 참석자: 최광재, 심순애, 강우석, 김종철, 김하주, 정은주, 윤철, 백승모(8명)

-별다른 안건 논의는 없었음.

■ 7월 월례모임

▶ 휴가철과 맞물려 열지 않기로 함.

■ 8월 월례모임

▶ 8.29일 19:00, 대성복점

- ▶ 참석자: 김기오, 심순애, 이진웅, 백승모, 강우석, 정은주, 박고희, 장상철, 이곤섭, 김하주, 정성순
- 정해진 안건 없이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모임 진행.

■ 9월 월례모임

- ▶ 9.26일 19:00, 광안리
- ▶ 참석자: 김기오, 정성순, 이진웅, 김하주, 최광재, 장상철, 이점도

■ 10월 월례모임

- ▶ 10.31일 19:00, 대성복점
- ▶ 참석자: 김기오, 정성순, 이진웅, 김하주, 최광재, 장상철, 이점도
- 이진웅: 논의만 하고 실행이 없다.
- 김기오: 모임의 취지 자체는 좋다. 작은 문제 해결. 모임이 침체되다 보니 스스로에게 실망감도 든다. 한번 최대한 많은 사람이 모여 토론했으면 좋겠다. 재정립 or 해체 논의. 11이나 12월 정모 때 모이자. 모여서 나아갈 바 정하자.
- 정성순: 회(모임)가 활동하든 안하든 존재한다는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다. 사사세도 전화 안 하면 사람들 안 모인다. 전화해도 안 오는 경우 많다.
- 김기오: 지향점은 있어도 잘 안 되는 상황. 그렇지만 해체는 아니다. 11월 월례모임 때 전 구성원들이 모여 논의하자.
- 이점도: 작권모 포함해 함께하는거창의 리빌딩도 필요하다.
- 결론: 11월 월례모임(11.28) 때 작권모뿐만 아니라 함께하는거창의 운영진도 참가하는 워크숍 수준의 논의 펼치기로 함.

■ 11월 월례모임

- ▶ 12월 5일(화) 19:00 광안리
- ▶ 참석자: 김기오, 김종철, 전병준, 이점도, 이수구, 임영태, 김하주, 김도연, 이곤섭, 강우석, 정성순, 최광재, 이진웅, 윤철
- 김기오: 지난 2~3년간 사업 성과가 없었다. 찾아라 작은권리 시즌2도 추진했으나 결론이 없었다. 동력이 떨어진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

- 김도연: 작권모가 10년이 넘으니까 위기가 온 것 같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것 같다. 안건이 제시하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안건 자체도 안 나오고... 보완이 필요하다.
- 최광재: 작고 소중한 안건이 가끔 나오는데 너무 끄는 경향이 있다. 교도소문제가 일단락될 때까지 휴지기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 젊은 사람들이 직을 맡아서 분위기 일신도 피해야 한다.
- 윤철: 함께하는거창 전신인 시민연대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으나 조직재정비를 통해 거듭났다. 작권모라는 조직을 잘 만들어 놓고 없애자는 건 그렇다.
- 김종철: 재정비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 보자. 조금만 신경쓰면 잘 될 것 같다.
- 이점도: 작권모도 내부적으로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 이수구: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친목도모 기간으로 잡고 노력해 보자.
- 김하주: 조직의 존폐 여부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기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회원들이 노력해 보고 이후에도 나아지는 조짐이 없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자.
- 최광재: 젊은 총무가 와서 조직을 재정비했으면 좋겠다.
- 김기오: 원포인트 실무자가 필요할 듯하다. 회원들도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이곤섭: 6개월 동안 미뤄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정성순: 그동안 여러 사안들로 지역내 시민단체들이 많이 지쳤다. 그러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는 조직이 있다.
- 강우석: 주제를 갖고 모이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가볍게 모이고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쉽다.
- 전병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조직에는 여러 성격이 있다. 물론 사업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 김기오: 모임 해체는 합당치 않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지는 것 같다. 휴지기가 필요할 것 같다. 내년 춘삼월쯤이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 밴드 등에 좋은 의견들을 수시로 내 달라. 작권모 단톡방도 개설하자.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8년 사업 계획

함께하는게창이 2018년 해야 할 일의 흐름을 정리해 봅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은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게창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보태 주십시오.

■ 사무국

- 사무국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사업과 살림을 꾸려가겠습니다.
- 기본업무에 충실하며, 함께하는게창이 해야 할 일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기며,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홍 보

- 회원들과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올해는 분기별 1회 연 4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실어 읽고 싶은 소식지, 회원이 기다리는 소식지로 만들겠습니다.
- 함께하는게창의 활동 내용을 주민들에게도 잘 전달하도록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 회원 활동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큰 행사보다는 작더라도 쉽게 참여하고 즐기는 내실 있는 행사를 마련하겠습니다.
- 등산모임 푸른숲과 작은권리찾기모임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 회원들의 요구, 취향에 따라 새로운 소모임 혹은 함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겠습니다.

■ 교육연구소, 장학사업

- 장학사업은 거창하진 않지만 적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와 입시교육 위주의 고민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문제를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경제적 지원 외에도 아이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민하겠습니다.

■ 건강한 지역 사회를 위해

- 예산감시 활동 및 각종 지역현안에 대해 꾸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엔 **함께아는거창** 주최로 ‘예산학교’(가칭)를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 주민자치조례 제정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 학교앞 교도소 반대운동이 올해로 5년째입니다. **함께아는거창**이 적극 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군의회 의정활동 감시, 정보공개운동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출범한 거창군의회정지기단의 활동에 힘을 쏟겠습니다..

■ 연대와 협력

-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희망자치 거창유권자연대’ 활동을 통해 좋은 정치인을 뽑는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 일상적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겠습니다.
- 시민단체 대표&실무자모임을 정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행사 위주의 일회성 연대를 넘어 일상적 사업 고민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

1.일반회계(사무국)

(단위:원)

수 입			지 출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회비수입	28,000,000	인 건 비	급 여	19,200,000	
	후원금(사)	5,00,000		상 여 금	700,000	
	후원금(금)	2,130,000		퇴직적립금	1,200,000	
	후원금(작)	1,200,000		복리후생비	2,361,370	
기타수입	이자수익	7,00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4,200,000	
	차 입 금	0		기기구입비	300,000	
	잡 수 입	2,600,000		사무용품비	300,000	
	전년도 이월금	7,526,991		세금과공과금	5,000	
				소모품비	100,000	
				수 선 비	100,000	
				수도광열비	1,200,000	
				통 신 비	550,000	
				사 업 비	도서인쇄비	1,000,000
					발 송 비	500,000
					분 담 금	2,000,000
					사 업 비	5,000,000
					회원활동비	2,000,000
					회 의 비	100,000
			출장연수비		0	
			잡 비		300,000	
			사업외비용	차입금 상환	0	
				예 비 비	847,621	
수입합계		41,963,991	지출합계		41,963,991	

2장학사업특별회계

수 입		지 출	
후 원 금	14,400,000	장 학 금	14,400,000
이자수익	1,000	부대비용	0
전년도 이월금	578,568	세금과 공과금	100
-		예 비 비	579,468
수입합계	14,979,568	지출합계	14,979,568

- 주1) 예산(안)은 2018년 1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어 실제 함께하는거창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2) 2017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7년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주3) 일반회계 중 후원금(원)은 교육연구소 설립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교조 거창지회가 설립·운영하는 인문학서점 “숲”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20만원 들어오는 후원금을 매달 말일께 ‘분담금’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주4) 장학사업특별회계 중 수입액과 지출액은 2017년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부부

[기자회견문]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거창유권자선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행복보다 일부 국민들의 이익과 특권을 위해 일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었다.

국민의 뜻을 수렴해야 하는 새누리당은 오직 정권의 부역자 노릇에만 충실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더 이상 거창군민은 파탄난 타락정부를 믿을 수 없어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 모두가 일어나 새로운 정치를 요구한다.

박근혜정부의 파탄으로 몰락한 서민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드 배치로 인한 인근 나라와의 외교적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며 평화적인 통일을 주도해 민족역동적 통일세상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경제정의를 실천하여 이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공유.공평.공정한 경제질서를 조속히 수립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위한 국민적 염원과 뜻을 받들어 거창군민들은 함께 동행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우리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거창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하나, 우리는 공평, 공정한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를 실현한다.

하나, 우리는 야권후보단일화를 이루어낸다.

하나, 우리는 정권교체로 거창교도소 이전을 주민의 뜻대로 신속 추진한다.

하나, 우리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며 공정한 선거운동을 실시한다.

하나, 우리는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민주세력과 동행한다.

2017년 2월 7일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를 위한 거창유권자모임 '동행17'(가)



부패 언론인 강력 처벌하라!

우리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협박, 공갈, 공무집행 방해 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류영수 전 채널경남 대표를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한다.

피고인 류영수는 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사 사주로서 누구보다도 공익 추구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 공갈과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거창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적폐로 비난을 받아 왔다.

농가맛집사업사업과 관련해 류영수로부터 협박 및 고발을 받은 공무원 오모씨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퇴직까지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보건소 블라인드 및 사무집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담당공무원 최모씨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후환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박을 가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2015년 축협 애우 홍보예산 2,500만원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축협 직원 유모씨가 ‘어쩔 수 없이 한, 반 강제적인 계약’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유모씨는 류영수가 언론사 사주이기 때문에 축협에 불리한 보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언론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언론인은 일종의 공인으로서 이 힘을 오직 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영수는 공인의 신분을 망각, 협박과 공갈을 통해 사익을 쫓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류영수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지역현안인 학교앞 교도소 문제와 관련해 법조타운추진위원장을 맡으며 교도소반대 범대위 측 인사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일삼은 바 있다.

이 고소고발 건은 경찰조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드러났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류영수는 범대위 관계자들의 불법건축물을 고발하는 등 추가적인 보복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류영수는 자신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 왔으며, 지금 열리는 재판에 관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류영수의 보복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거창의 적폐청산 및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류영수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7. 05. 24.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일동



거창군외정지기단 결의문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와 더불어 주민의 건전한 여론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법적·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할 우리 의정지기단은 각 분야의 책임있는 운동주체들이 모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정책대안을 연구·제시하는 참여활동과 의정에 대한 군민들의 비판 기능을 통하여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바른 정착을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는 군민 생활상의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생활인 의·식·주에서부터 군민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활동이 펼쳐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는 군정의 감시와 견제는 물론 지역사회의 당면과제와 주민갈등에 대한 대안제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정지기단은 의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군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매진코자 한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계도, 교육활동을 군민과 함께 수행함으로써, 거창군의 당면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군민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참여와 자치를 이끌어내는 중심적인 역할도 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의정참여활동은 군의회에 대한 비판자의 역할을 넘어 의정의 협조자, 격려자의 소명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순하고 편협한 감시의 차원에만 머무르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군민의 의견에 귀

를 기울이고, 군민의 권익을 존중한다는 대원칙을 중심에 두고 이를 의정 활동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 활동의 시작은 작지만 소중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은 크고 원대하다. 앞으로 우리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작은 밑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 길에 우리의 노력이 함께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7. 7. 19.

거창군의정지기단 일동



100억이라는 군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창국제연극제는 군민 전체의 자산이다!!!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의 연극인들의 예술적 열정에 의해 시작되어 거창군의 지원과 거창군민들의 사랑 속에 발전해 왔습니다. 29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며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거창의 국제연극 문화는 거창군민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창국제연극제(이하 연극제)가 두 개로 갈라져 거창군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거창의 연극인들과 관객인 군민들이 공동으로 만든 연극제가 온갖 잡음 속에 대외적으로 위상과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거창의 시민단체들은 2008년부터 연극제의 재정 불투명성을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연극제 결산검사위원회를 발족하여 검토한 바 연극제 재정운영의 불투명성을 발견하고 재정 운영과 연극제 운영을 분리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연극제 개혁을 위한 대 군민 토론회 제안을 하였으나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연극제의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근본적인 개혁 없이 소소한 문제점들을 봉합하는 수준의 처방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2015년에 거창군의회가 연극제 재정집행에 대한 불투명성을 이유로 예산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연극제는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거창 시민단체들은 이번 연극제가 극단적인 파행으로 치달은 근본원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군민 여러분께 전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연극제의 가장 큰 문제는 한마디로 연극제의 운영을 맡아온 “거창국제연극제 육성진흥회”가 거창군민들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연극제 파행의 근본원인은 “거창국제연극제 육성진흥회”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공적신뢰의 상실에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8월 26일 우크라이나 공연비 2,000만원에 대한 지출결의와 지출일이 8월 26일 지출인데, 영수증은 8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의 부정지급 및 성격이 다른 가을 연극제에 연극제 예산의 집행이 논란거리가 되었고, 협찬금은 티켓으로 교환해 대량의 무료티켓이 발생하여 유료티켓과 혼재되어 티켓정산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또 스폰서를 받아온 자에게 스폰서 금액의 30%를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른 지급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고 특정인에게 집중된 수수료 지급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폐 모동초등학교 임대료를 연극제 보조금으로 집행하여 부정적으로 사용하였고, 식대금 등 영수증과 카드결제 날자가 일치하지 않아 지출행위가 명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일부금액은 진흥회 부채상환에 전용하여 형사입건 유예를 받아 불법전용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1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 거창군 최대의 문화행사인 연극제는 행사가 진행될수록 빛이 늘어나는 기현상으로 운영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습니다,

군 행정 또한 시민단체가 2011년 정보공개 요구를 하였음에도 진흥회의 비밀보호라는 명분을 들어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하였습니다.

★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군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는 상표 소유권 주장을 내려놓고 거창군은 공동주관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2015년 거창군의회는 내부갈등과 신뢰를 상실한 진흥회에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군이 직접 집행하라는 단서를 달아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거창군은 문화재단을 만들어 연극제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거창군의회는 결정에도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동인 군수는 4월 20일경 이종일 대표를 만나 문화재단을 통한 연극제 집행을 제안했으나 이종일 대표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문화재단과 진흥회 측의 연극제 단일화의 접촉이 있

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두 개의 연극제로 진행이 되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거창국제연극제의 새 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에 앞서 덧붙이자면,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종일 대표가 지역 연극인으로서 그동안 열정을 다해 온 것은 높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문화재단이 출범하였고, 거창국제연극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거창군과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측은 명목상으로나마 공동주관의 형식을 갖춰서 대외적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 문화재단이 주관하여 개.폐막식을 하되, 진흥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3.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 없이 보장하라.
4.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측 티켓을 공용으로 사용하라.
5. 프로그램 안내 등 관객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통합하여 시행하라.
6. 이미 통합운영은 불가능한 시점이므로 양측의 공연 일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7. 연극제 이후 관련 단체와 민,관이 모인 군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극제 관련 협의를 시작하라.

2017년 7월 25일

함께하는거창, 거창기독청년회(거창YMCA),
푸른산내들, 거창군농민회

[강석진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강석진 의원은 학교앞 교도소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밝혀라!

1) 강석진 의원께서는 지난 2016년 3월 11일자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거창교도소]거창교도소 문제는 교육도시 거창의 이미지, 거창군의 이익, 거창군의 미래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단지 혼자 힘으로는 이를 수 없으니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결집할 때 이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란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새누리당 거창.함양.산청.합천 국회의원선거 후보경선을 앞두고 범대위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는 “학교앞 교도소는 본인의 철학과 맞지 않다. 이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 의원의 행보를 보면 그때 밝힌 소신과 너무나도 어긋나 당시 발언들이 학교앞 교도소를 반대하는 많은 군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단순한 선거용 멘트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강 의원께서는 학교앞 교도소에 관한 현재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 최근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9명이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그들의 의무를 망각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학교앞 교도소 원안 고수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26일 거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로 인해 28일로 예정돼 있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창방문이 무기 연기되는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다. 또한 이들은 12월 1일 법무부를 기습적으로 방문, 법무부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원안 추진을 원하는 군민이 다수”라고 민의를 왜곡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9명의 의원들 중 7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이들에 대한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강석진 의원임을 감안할 때 강 의원의 암묵적 허락 내지 배후 지시 없이는 이들이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강 의원께서는 이들의 최근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 학교앞 교도소 문제는 최근 4년 동안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이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주민 갈등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강 의원께서는 최대한 빨리 이를 해결해 강 의원을 선택한 많은 주민들의 신뢰에 부응해야 합니다.

강석진 의원께서는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12월 23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기한 내 답변이 없을 시 이와 관련된 사실들을 언론에 공개하는 동시에 각종 행동에 들어갈 것을 알려 드립니다.

2017. 12. 27

함께하는거창 공동대표 이기식, 이점도

약속 이기는 정치인은 거창에 필요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고립되어 살 수 없고 타인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며, 이 관계를 가능케해 주는 것이 상호간의 약속과 신뢰라 할 수 있다.

이 약속과 신뢰가 무너지면 인간관계, 나아가 사회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人)의 말(言)은 믿음직스러워야(信) 한다.

사회 일반의 이치가 이러할진대, 공공의 영역인 정치에서의 약속과 신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더욱 소중하다 할 것이다.

최근 4년간 거창 지역사회는 학교앞 교도소 문제로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수 차례의 대규모집회, 수십 차례의 법무부 및 국회 상경투쟁, 수백 일에 걸친 천막농성 및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속에서의 노숙투쟁...

오로지 교육도시 거창을 지켜내기 위한 열망 하나로 위대한 거창군민들은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이러한 일들을 거뜬히 해냈다.

그 결과 학교앞 교도소 문제는 국무총리실의 25개 국가갈등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해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강석진 국회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최대 지역현안인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앞장서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당선된 이후 이렇다 할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의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선거 직전 본인의 SNS에 올린 "학교앞 교도소는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스스로 배신함으로써 이러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함께하는거창은 학교앞 교도소와 관련한 강 의원의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해 지난 12.12일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강 의원은 지역신문인 한들신문에서 보낸 관련 질의서에도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교반 군민들을 배신"했다.

이제 우리는 안다. 당시 강 의원의 이전 발언은 학교앞 교도소의 이전을 열망하는 많은 군민들의 표심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강 의원은 기억할 것이다. 지난 군수 재직 시절의 "(군수)임기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총선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사퇴한 후 겪었던 쓰라린 야인의 시절을... 거창군민들 또한 기억할 것이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강 의원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란 말이 있다. 이미 두 번의 약속 파기를 지켜본 군민들은 더 이상은 속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바보가 되기를 거부할 것이다.

흔히 정치인을 말로 하는 직업이라고 한다. 이제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으니 강 의원은 앞으로 무슨 자산으로 정치를 해 나갈 것인가?

우리 함께하는거창을 포함한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제 단체들, 그리고 여전히 학교앞 교도소 이전을 열망하는 많은 교반 군민들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도의를 저버린 강석진 의원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며, 많은 군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 다시는 이런 정치인이 거창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즉각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옛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실천이 따르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서였다." 퇴계선생의 <자성록> 첫 문장이다.

강석진 의원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2017. 12. 27

함께하는거창 공동대표 이기식, 이점도

함께하는거창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함께하는거창**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함께하는거창**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하여, 생활세계에서의 주권확보와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함께하는거창**의 사무소는 거창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함께하는거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운동-사업을 전개한다.

1. 주민자치 운동 : 참여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활동
2. 자치공동체 회복운동 : 자치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3. 공론영역 형성운동 : 생활세계의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리적 공론을 형성하는 활동
4. 자치언론 개혁운동 : 자치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언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활동
5. 민주시민 교육운동 : 주민들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 재고를 위한 회원 및 주민교육 활동
6.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가입) **함께아는거장**의 목적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삭제, 2006년 1월 17일)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함께아는거장**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함께아는 거장**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함께아는거장**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함께아는거장**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함께아는거장**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상벌) **함께아는거장**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회의 포상 대상이 된다.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비회원으로서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견책 또는 경고를 통해 반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되는 자.
2. 이 모임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본 회의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자.
3. 위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그 직의 수행을 중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절 회원총회

제10조(지위) 회원총회는 ~~함께하는~~ **개방**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소집) 정기 회원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 회원총회는 재적 회원 1/5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권한 및 의결) 회원총회는 ~~함께하는~~ **개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고, 의결할 내용을 반드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서면 및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총회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 회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개선(공동대표, 감사)
3.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안건

제13조 (출석) 회원은 회원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출석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임원선출은 제외한다.

제14조 (임원개선의 절차) 임원의 선출방법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공동대표의 합의로 임명하고 회원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 **개방**의 일상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련한 사항들을 의결·집행하는 기구이며, 모든 회의는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6조(구성) 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회원활동기구의 대표와 사무국장 및 후원이사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 1항의 구성원과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겸직하고,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1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 2항에 의거 구성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권한) 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각종 사업 및 활동의 입안과 집행
2. 회원활동 기구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
3. 운영위원 위촉,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4.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과 개정
5. 사무국의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7.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20조(사무국) **함께아는 세상**의 활동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간사, 정책, 기획,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후원이사회

제21조(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함께아는 세상**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공동대표는 3인 이내 두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공동대표 호선에 의해서 1인의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한다.

제22조(고문) **함께아는 세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역의 신망 있는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함께아는 세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24조(감사) **함께하는거창**의 사업 및 재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후원이사회) **함께하는거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후원이사 호선에 의하여 후원이사회 회장을 선출한다.

제4절 회원활동기구

제26조(회원활동기구)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활동 모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자발적 회원활동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공식 회원활동기구로 등록되며,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의무

1. 활동상황에 대하여 회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활동결과에 대한 대외적 발표 및 대응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권리

1.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활동에 필요한 회원지도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한 대외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7조(회계연도) **함께하는거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1.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당해 연도 결산(안)은 회원총회 개최 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예결산서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함께하는거창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9조(수입)

1. **함께아는계정**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기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2. 특별기금은 후원이사회에서 관리하며 그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할 때 후원 이사회의 결의를 따른다.
3. 특별기금의 이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회비) 회원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장학사업 특별회계(2009. 1. 20 신설)

제31조(장학사업의 목적) **함께아는계정** 장학사업 특별회계는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회계연도)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수입) **함께아는계정**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2. 본 장학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주민 또는 기관, 단체의 자발적 후원금
3. 후원금 모금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4조(지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후원자 모임에서 결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를 정한다. 단, 후원자 모임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사무) 장학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후원자 모임에서 간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에 간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정관과 내규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제7장 보칙

제36조(정당 활동의 제한)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은 선출직공직에 입후보하는 경우, 정당의 주요당직을 맡을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라도 자동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제37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38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함께하는계정~~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함께하는계정~~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2009. 1. 20 개정)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7월 16일 임시총회에서 2차 개정(전면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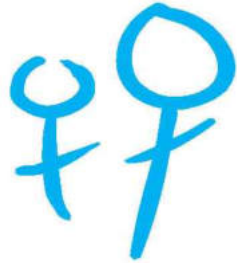
2009년 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2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6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7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8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7년 2월 2일 정기총회에서 9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www.gcngo.org